

道袍에 대한 史的 考察 및 民俗學的 研究

—嶺東地域을 中心으로—

趙 權 姬

關東大學 家政教育科

A Study on Dopo Dealt with its History and Folklore —in Young-dong Province Area—

Geun-hi Ch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wan Dong College

(1987.9.22 접수)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Dopo, one of the representative ceremonial dress that acclausal scholar used after the middle of th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is study represents the period of Dopo's formation and its origi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ary of Dopo in Young Dong Province Area is arranged by folkloric method on the base of the existitng facilities.

Dopo has worn since the middle of th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It is the kind of Jig young Po that its back is cutted for convenience and has another cloth as a ceremonial dress. It is thought to be one of the national customs pos formed by the mixture of the big sleeve type which is influenced by confusion life feeling. It seemed that the name of Dopo comes from the Jigchal, an ordinary dress of a high official in China, which is call Dopo.

This Dopo is changed and received and so disappeared but it is still used such as ceremonial dress, the necessary articles for marriage of the bride, a bridegroom's liturgical vestments of a memorial service held on the anniversary of the death of a person, mourning dress and a shroud grave clothes.

This area has different characters on wearing customs. It is changed into the kind of Dopo, with its back not cutting. The hemp sack is almost used as its subject matter. It doesn't have collar strip for the classification of one's family in any case, and Dopo which is prepared for necessary articles for marriage can not be taken back after seperating by divorce.

I. 序 論

으로한 東海岸 一帶를 嶺東이라 하는데, 嶺東地域의 중심은 江陵으로 江陵文化圈을 형성하고 있는 地域을 말한다.

韓半島 東便을 침차게 뻗어내린 太白峻嶺을 分水嶺

같은 江原道라 할지라도 嶺西地方은 志士의 武士氣

質을 갖고 있다면, 嶺東地方은 風流的 文士氣質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景勝이 뛰어난 勝地가 많아 옛부터 이곳을 찾아온 風流文人이 많아 이들에게 影響된 點도 있고, 海岸을 따라 點綴되어 있는 自然景勝으로 말미암아 自然的으로 風流의 人性을 갖게 된 것이다. 또 儒·佛·原始信仰등의 영향으로 內面的 心性에도 禮를 중히 여기는 文鄉의 高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背景으로 인하여 이 地域은 그 나름의 고유한 禮俗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稿는 일반적으로 服飾이 人間生活의 反映이라는 點에 重點을 두고 이 地域 服飾文化의 特徵 중 朝鮮時代 중기 이후 선비의 禮服으로, 오늘날 이 地域에서 특히 중히 여기고 있는 道袍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服飾을 研究하는 데는 文獻이나 遺物을 통하여 考察하는 方法도 있지만 現場調査를 통한 民俗學的인 方法도 과거의 慣習이나 地域差를 파악하는데 유리한 方法으로 記錄이나 遺物의 不在로 그 文化가 連結이 안 되고 斷絶되었을 때 특히 追跡할 수 있는 資料가 될 수 있으므로 現在까지 殘存하고 있는 服飾에 대한 古老들의 證言을 정리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道袍의 由來와 生成時期등을 文獻을 통하여 考察하여 보고, 道袍에 대한 이 地域住民의 慣習을 통하여 이 地域의 特徵의인 面을 考察해 봄으로써 服飾에 反映될 수 있는 生活感情의 差異도 살펴보고 일반적인 風俗이나 慣習이 地域에 따라 差異를 보이듯이, 地域에 따른 特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道袍에 관한 史的 考察

服飾이란 社會現象과 밀접한 關聯속에서 固定되기도 하고 變化되기도 하는 것으로 時體에 따라 다소의 形態變化도 있을 수 있고, 같은 形態의 服飾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道袍도 「星湖僊說」이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道服’¹⁾이라고도 하였고, 慶北達城郡 八公山 把溪寺에 所藏되어 있는 1740년경의 英祖 道袍의 發願文에는 단지 ‘上衣’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 朝鮮朝에 이루어진 일종의 百科事典인 「廣才物譜」²⁾에는 ‘直身道袍’를 道袍라 하였고 「事類博解」³⁾에는 ‘道衫’을 道袍로 註한 것도 보인다.

근래에도 濟州道의 경우 婚禮를 치르고 成人이 되어야 입을 수 있는 道袍를 男子의 婚禮服인 冠服보다 비중을 더 두어 이 옷을 ‘큰옷’이라 하며⁴⁾ 1934年 忠南

儀禮準則에 의하면 뒤는 道袍와 같고 그밖에는 두루마기와 같은 袍를 簡易道袍(개량도포)⁵⁾라 함을 알 수 있다.

즉, 道袍를 時代나 地域에 따라 道服, 直身道袍, 上衣, 道衫, 큰옷이라 칭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服飾은 自然環境과 社會環境에 직접적 연관을 가진 그 時代 生活樣式의 表現으로서 生活樣式이 변하면 服飾도 변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自然的 環境은 같다고 하더라도 社會的 環境은 時代에 따라 조금씩 변하므로 服飾은 그 時代를 代辯하기도 하고, 社會의 要求에 의해 生成, 變化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道袍의 生成時期를 고찰해 보면, 文獻上的 처음 記錄이 宣祖 40年 記錄⁶⁾에 보이며 「孝宗實錄」에는 “道袍制度가 壬辰亂 以後부터 있었다”⁷⁾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生成時期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文運이 道學쪽으로 기울었던 中宗代에 생성된 袍⁸⁾인 것으로 추측되며, 現在까지 道袍의 最古 遺衣라 알려진 傳 朴將軍 道袍의 착용년대 이전의 것으로 推定되는 다른 遺衣중에도 帖裏나 直領은 보이면서 道袍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宣祖代 전이라 하여도 그리 오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道袍의 由來에 대하여는 「五洲衍文箋散稿」에 “그 制度의 根原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비록 老師, 宿儒라 할지라도 그 기원을 잘 모르는데 그것은 어디에 根據를 두고서 考證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⁹⁾라 하였듯이 정확한 由來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道袍의 由來에 대한 記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德懋는 道袍를 “比丘의 紈套”¹⁰⁾라 하였고, 이 說에 同意하며, 그의 孫子인 李圭景은 “道袍를 그냥 袍라고 하지 않고 袍字위에 ‘道’字를 붙였으니 그것으로 그 이름을 붙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실은 道·釋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증거로는 지금 道袍를 稱하여 道服이라고 하지 않는가”¹¹⁾라 하였듯이 道釋에서 온 것으로 “中國의 道袍는 원래 秘書에서 시작되었는데 唐武后가 馮小保를 총애하여 僧이 되게 하였다가 고쳐 懷義가 되게 하여 梁國公에 封하였다. 그러므로 옷과 모자를 모두 조정에서 쓰는 것을 썼는데, 直綴이라 하고 褊衫이라 하고 寬衣라 하고...”¹²⁾라 하며 이것으로 道袍와 直綴이 僧道에서 시작된 明證으로 보았다. 또 直綴이 僧服이라는 證據로 「和漢三才圖會」를 인용하여 “道服은 그 制度를 살펴 보건대 直綴(일명 直綴)과 같으니 본래 僧衣에서 출발한 것이다.”¹³⁾라 하였다.

이상의 李圭景의 說에 대하여 考察해 보면 「辭海」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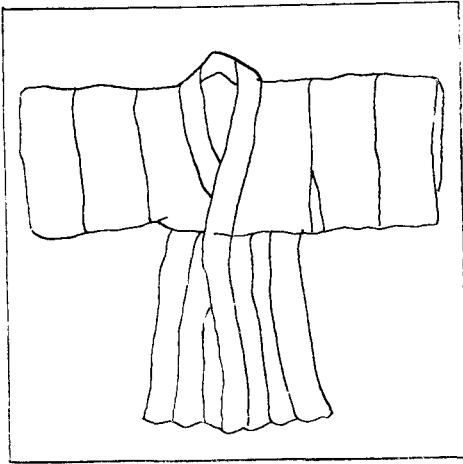


圖 1. 道服(출처: 和漢三才圖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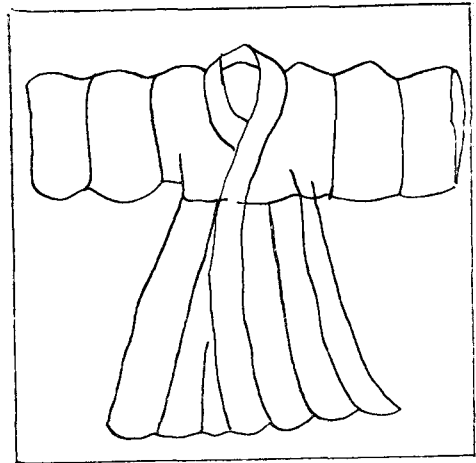


圖 2. 直綴(출처: 和漢三才圖會)

“直綴은 直綴이라고도 하며 옛날의 燕居服으로 또 稱하기를 道袍라 한다.”¹⁴⁾라 하였고, 「中國歷代服飾大觀」에는 “直綴(dūo 掇)을 어떤 사람들은 直身이라고도 한다.”¹⁵⁾고 한 것으로 보아 直綴, 直綴, 道袍, 直身이나 같은 옷을 가르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星湖僿說」에는 “字書에 의하면 袍라는 것은 表衣의 통칭으로 世俗에서는 直身이라하고 兩京에서는 道袍라 하며, 朝服도 또한 袍라 하는데 隨·唐때는 馮翼이며 지금은 直綴이며, 옛날에는 逢掖이었다.”¹⁶⁾라 하여 그 당시 表衣였던 直綴을 ‘直身’ 또는 ‘道袍’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 林逋의 寄山寺詩에 “身上祇衣粗直綴”, 蘇轍의 孔平仲惠焦布詩에 “更得雙蕉縫直綴者人渾作道人看”¹⁷⁾이라고한 文句를 통하여 直綴이 山人, 道人也 착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道袍를 道服이라고도 한 반면에 中國에서는 道服이 袈紗에 대한 別名으로 ‘出世服’¹⁸⁾으로 불리기도 하여 우리와 같이 ‘道袍’를 ‘道服’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圖 1과 圖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文化圈이라 할 수 있는 日本의 경우에는 道服과 直綴이 비슷한 形態이며 「江馬務著作集」에 “道服의 本體는 直綴이다…直綴의 綴이라는 字는 綴이라는 字로 책에 기록되기도 하며…”¹⁹⁾라 한 것으로 보아 日本의 경우 道服은 直綴에서 유래된 것으로 둘 다 僧衣²⁰⁾이며 直綴을 ‘直綴’이라고 쓰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中國이나 日本에서와 같이 僧衣의 일종으로서 直綴(直綴, 直綴)이라는 服飾名은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의 僧服인 長衫은 中國에서는 直綴이라 한다²¹⁾ 하였으므로 中國의 直綴에 해당하는 것이

長衫임을 알 수 있다.

形態面에서 보면, 直綴이라는 服飾名이 있는 中國이나 日本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즉 中國의 경우 王世禎의 「觚不觚錄」에 “허리 가운데를 한 줄로 가로지르면 그것을 程子衣라 하고 가로 지름이 없으면 道袍 또는 直綴이라고 하며 燕居에 常用되는 것이다.”²²⁾ 하였고 「中國歷代服飾大觀」에도 直綴은 這種樣式²³⁾(衣와 裳이 구별없이 上下가 通直이며 通裁된 樣式)이라 하였으므로 切斷線이 없이 이어진 形態이고 日本의 直綴(直綴)은 「和漢三才圖會」에도 보이듯이 上下가 分離되어 아래에 주름을 잡아 연결한 것으로 서로 形態가 다를 수 있다. 「江馬務著作集」에 “中國의 直綴이라는 名稱이 我國(日本)에 모방된 것이 아닌가 한다.”²⁴⁾라고 밝혔듯이 中國에서 山人, 道인이 착용하기도 하였고 燕居服으로 사용되었던 道袍(直綴)가 日本에서는 直綴이라는 名으로 僧服으로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朝鮮實錄」에 “宋代때 부터 선비들이 입은 道袍는 道士들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僧徒에 전해졌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正服이 된 것입니다.”²⁵⁾라 하였고, 「觚不觚錄」에서도 알 수 있듯이 明代에도 燕居服으로 입혀졌던 道袍가 「湛軒書」에 “관리의 朝服이나 선비의 道袍는 明制를 답습하고 있습니다.”²⁶⁾라는 記錄과 中國에서 表衣를 稱하는 말로 直綴의 異名이기도 하였던 ‘直身’이 「成宗實錄」²⁷⁾에도 보이므로, 道袍의 形態가 傳來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慕華事大主儀가 철저하였던 朝鮮時代に 日本에 直綴이라는 服飾名이 模倣되었듯이 明代에 士人服飾이었던 道袍라는 이름이 模倣된 것이 아닌가 한다.



圖 3. 大裘(출처: 三才圖會)

「增補文獻備考」에는 “李瀛이 말하기를 道袍라고 하는 것은 <據通>에 보면 옛날의 大裘의 制度이지 遐裔에서 창조한 것이 아닌것으로서 <周禮>에 보이는데 周나라 禮는 반드시 前古의 制度를 섞어서 썼으니, 우리나라 風俗으로 미루어 본다면 아마도 殷나라 制度일 것이다. 나는 그래서 말하기를 ‘갓과 道袍 및 부인네들의 雙紒와 纓首는 다 箕子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이다.’라고 한다. 禮라는 것은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祭祀에 이 물건을 쓰는 것은 그 뜻이 당연하다.”²⁸⁾라 하여 道袍를 大裘의 制度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大裘에 대한 記錄을 보면 宋代의 「演繁露」에 “大裘는 지금(宋)의 道服과 같고, 비스듬한 옷깃에 옷자락이 겹쳐지는 것은 지금의 긴 背子와 대략 같다. 다만 다른 것은 背子は 膀를 터놓았고 裘는 兩腋을 縫合한 것이다.”²⁹⁾라 하였고, 「三才圖會」에 의하면 大裘의 形態를 알 수 있는데(圖 3) 道袍의 특징인 2점의 뒷자락 形態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形態가 그대로 由來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大裘가 옛날의 盛服으로 享祀나 接賓時에 着用되었고 道袍 역시 接賓과 祭祀에 착용되었으므로 大裘의 遺制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

또, 韓元震의 「南塘草稿」에는 “생각컨대 士子의 出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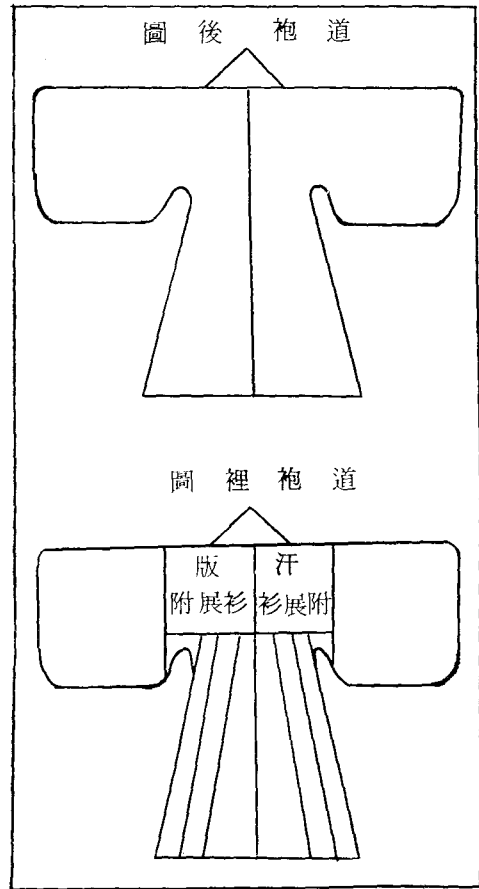


圖 4. 道袍의 後裡圖(출처: 南塘草稿)

上服은 爲官者가 입는 直領公服으로 할 수 없으므로 直領에 따라 조금 그 制度를 變化시켜 道袍를 만들었다. 道袍의 前面은 直領의 二葉衫을 道袍에는 衣裏의 汗衫에 左·右로 展附한 것이 다르다.”³⁰⁾하여 道袍가 直領에서 由來한 것으로 보았다. 즉 圖 4에서와 같이 直領의 양쪽 衫이 펼쳐져 들어가 등의 汗衫(요즘의 등바대)에 연결되어 道袍의 안자락을 이룬 것으로 보았다.

道袍의 由來에 대한 앞의 여러 說을 통하여 보면 李圭景이 道·釋 兩家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說은 같은 文化圈인 中國과 日本을 중심으로 이음에서 由來를 밝혀보려고 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의 ‘道袍’라는 服飾名은 中國에서 道袍가 이미 士大夫의 燕居服으로 정착이된 明代에 우리에게 傳來된 것으로 보여지며 大裘의 遺制로 보았던 李瀛의 說은 道袍가 祭祀의 服飾으로 입혀지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形態에 있어서는 「高宗實錄」에 “道袍와 直領은 상고함이 없이 마음대로 만든 옷이니...”³¹⁾라 하였고,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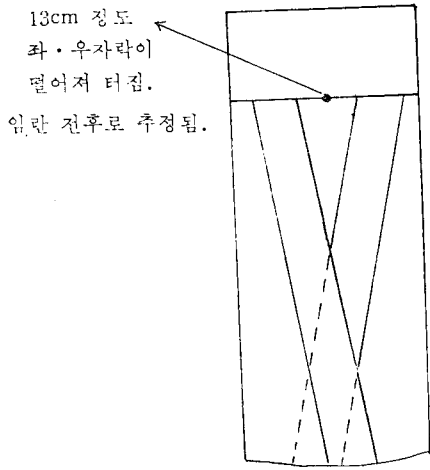


圖 5. 傳 朴將軍道袍
(출처: 중요민속자료지정 조사보고서 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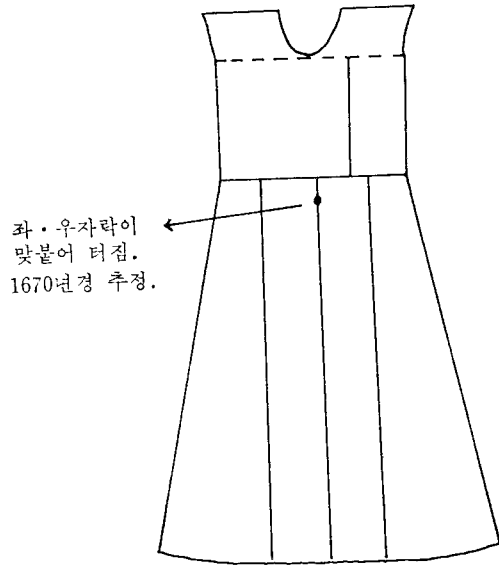


圖 6. 洪克加 道袍(출처: 안동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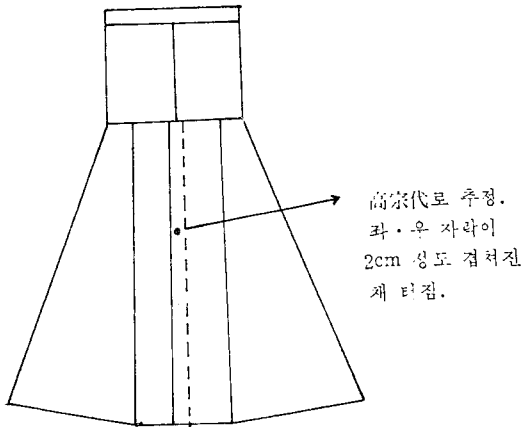


圖 7. 昌德宮소장道袍
(출처: 「朝鮮時代 宮中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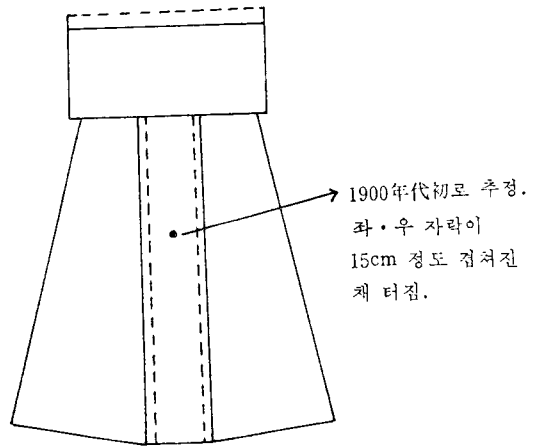


圖 8. 尹雄烈 道袍(출처: 延世대 소장)

洲衍文長箋散稿에 “처음에 道袍를 창제한 사람이 魯의 縫掖 또는 옛날의 大裘를 모방하여 손질을 거쳐 그렇게 만들게 되었음을 물랐다는 말인가?”³²⁾라 하였듯이 이러한 縫掖, 大裘와 같은 袍의 영향과 「南塘草稿」에서 論한 直領등의 形態에서 便利를 위해 뒷트임을 두고, 禮服이라는 用度에 의해 한자락의 垂幅을 더 두었고 차차 儒敎의인 生活感情에 따른 闊袖形의 혼합으

로 어떤 制度에 의한 것이 아니라 風俗에서 비롯되어 着用된 것으로 朝鮮中期의 社會的 環境下에서 生成된 國俗袍인 것으로 보여진다.

Ⅲ. 嶺東地域 道袍의 民俗의 特徵

從來까지의 道袍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여러 研究에서 高宗 21年 甲申衣制 改革때 中到莫, 髦衣, 道袍, 直

領을廢하고 두루마기를 입게한 후 차차 道袍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日帝時代에도 일부 인사가 禮服으로 삼았으며³³⁾, 1948년의 「朝鮮常識」에 “道袍는 最近에 다른 禮服이 다 浸廢함과 함께 男子 唯一의 예장인 觀을 묻하고 있다.”³⁴⁾하여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禮服으로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미 발표된 것³⁵⁾과 같이 道袍는 일부 地方에 아직도 殘存하는 禮服으로 특히 嶺東地域에서는 麻布道袍가 딸의 出家時 필수품³⁶⁾이라 이 地域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古老들은 실제로 道袍를 製作해 본 經驗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道袍에 대한 民俗의 考察을 실시하였고, 그 結果로 얻어진 內容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製 圖

道袍가 다른 便服袍와 뚜렷하게 區別되는 것은 2겹의 뒷자락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2겹의 뒷자락을 안자락과 겉자락으로 구분한다면 圖 5~圖 8과 같이 一般의으로 道袍 안자락에는 트임이 있다. 衣服의 트임은 人體와 物體의 結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環境適應의 機能的인 要求에 의하여 必然의으로 나타나거나 美的인 動機로 發生³⁷⁾할 수 있는 것으로 道袍의 트임은 말을 타거나 은둔생활에 필요한 機能的인 必要性에 의해 트임을 두고, 그 트임 사이로 속옷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겉자락 한자락을 더 둔 것으로 推測되어 있는데 이 地域의 道袍(圖 11참조)에서는 이러한 트임을 발견할 수 없다. 面談者³⁸⁾ 전원이 “트임이 있는 道袍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道袍의 一般의인 마름질법과 이 地域의 마름질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圖 9, 圖 10)

두 마름질은 소매, 무, 뒷걸안자락(속뒷걸)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差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精確한 理由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衣服의 製作자체가 個人의 自由意思에 따라 어느 정도의 自律性이 발휘되는 것으로 주로 麻布道袍를 위주로 하는 이 地域에서는 옷감을 節約하거나 바느질의 便利를 쫓아 겹차 트임이 없는 狀態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2. 用 度

道袍의 生成時期로 미루어 본다면 儒敎를 崇尚하고 實現하는 任務를 떠고 있는 선비의 服飾에도 儒敎의 性格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선비의 대표적인 禮服인 道袍도 儒敎의 四禮服으로 쓰였던 예³⁹⁾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다른 便服袍와는 달리 禮服의 性格을 많이 띠고 있는 道袍가 오늘날까지 이 地域에서는 結婚하는 女子의 必須品으로 주로 麻布를 사용하며 婚禮時 받은 道袍로 忌祭祀의 祭服, 父母喪의 喪服⁴⁰⁾으로 本人의 好喪옷(壽衣)의 用度로 착용한다.

3. 部分名稱

衣服의 각 部分에 대하여 불려지는 名稱에도 地方的인 사투리등에 의해 差異를 보일 수 있는데 이 地域에서 사용되는 名稱을 보면 다음과 같다.(圖 11)

4. 道袍의 素材

道袍에 使用하는 옷감은 주로 麻布로 婚需로 장만하는 道袍도 대부분이 麻布이며, 여유가 있는 집은 모시 道袍를 더 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 地域은 바다와 산간을 끼고 있어 農土가 적은 관계로 魚業으로 생업을 이루고 있어 婦女子들의 勞動力을 길쌈에 쏟을 수 있었다. 또 李重煥의 「擇里志」에서도 江陵地方에 大麻가 生産된다고 했으며 租稅品目으로 大麻가 記錄되어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런 點으로 비추어 볼때 오래전부터 이 地域에서는 麻布가 生産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¹⁾. 이러한 條件으로 이 地域에서는 時間과 勞動力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麻布를 필요로 하는 需要를 충족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삼베를 産地名에 의해 江布(常布)라 하는데 이 江布를 이용할 경우 道袍 製作에 필요한 分量은 대개 25자 정도이지만 慣習상 一疋을 購入하여 女子 적삼감 한감 분량을 남겨 男·女 공히 옷 한벌씩을 해입는다.

5. 그 밖의 道袍에 대한 慣習

禮俗이라는 것은 地方이나 家門에 따라 그나름의 相異點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예를 이 地域 道袍의 동정 附着 여부에서도 알 수 있다.

「江原總覽」에 “道袍는 地方과 집안에 따라 道袍에 동정을 다는 곳도 있고 동정을 달지 아니하는 곳도 있으며...”⁴²⁾라 하였듯이 이 地域에서는 아직도 동정을 달지 않고 道袍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風習은 옛부터 이 地域에서 중히 여겨왔던 선·부친 집안을 가르는 習俗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즉 嫡子出身인 선친(=구유) 집안은 庶子出身인 부친(=신유) 집안과의 區別을 위하여 동정을 달지 않았으며, 요즘도 이러한 慣習을 고집하여, 구유인 것을 자랑으로 동정을 달지 않는 집안이 있다.

또 이 地域에서는 舊婚俗에서 반드시 婚禮前에 道袍를 마련하던 風俗이 그대로 지켜져 舊式婚에서 新婦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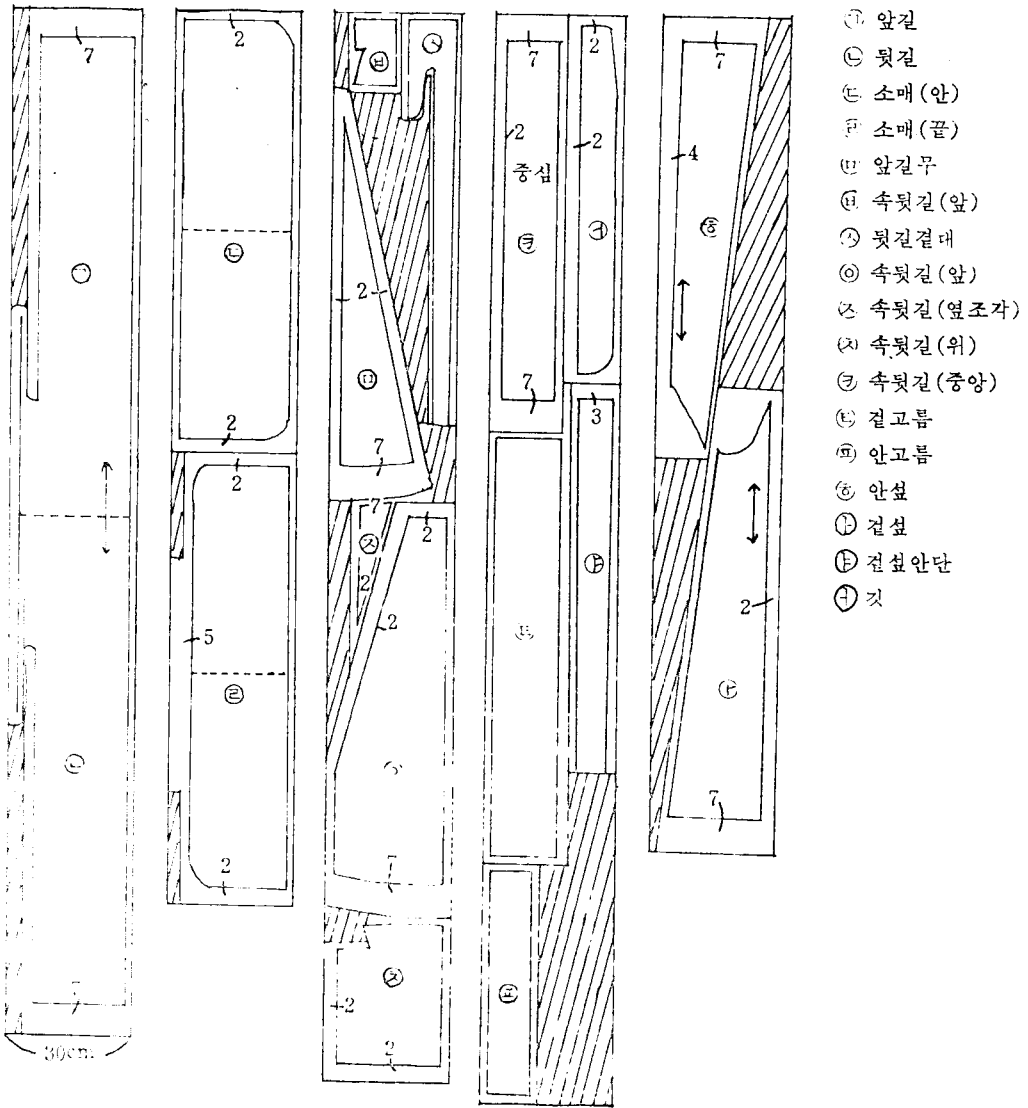


圖 9. 道袍의 마름질(단위: cm) ※ 지점의 치수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1cm로 한다.
 (출처: 李明姬(1977), “道袍에 관한 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권 1호, p. 21.)

에서 보낸 擇日單子의 回路에 道袍의 기장과 품을 재어 그 치수를 적고, 종이로 半尺見樣을 만들어 넣은 衣樣單子를 보내던 慣習을 따라 婚禮前에 반드시 道袍를 장만하며, 대개의 경우 반이 고은 겹삼베로 손없는 날(=吉日)을 택하여 당일애 製作한다. 이렇게 마련된 道袍는 結婚하여 살다가 離婚할 때에 女子가 해운 모든 物品 옷가지는 다 돌려주어도 이 道袍만은 주지 아니하는 俗信이 있다. 이것은 男子의 禮服인 道袍를 女子가 가지고 가서 속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 집이

亡한다는 俗說⁴⁸⁾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滿衣 道袍는 婚禮時 받은 道袍로 하거나 새로 장만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麻布로 하며, 모시로 하면 子孫중에 머리가 센(흰머리) 子孫이 태어난다 하여 피한다.

IV. 結 論

어떤 形態의 生活이든 間에 사람이 있는 곳에 風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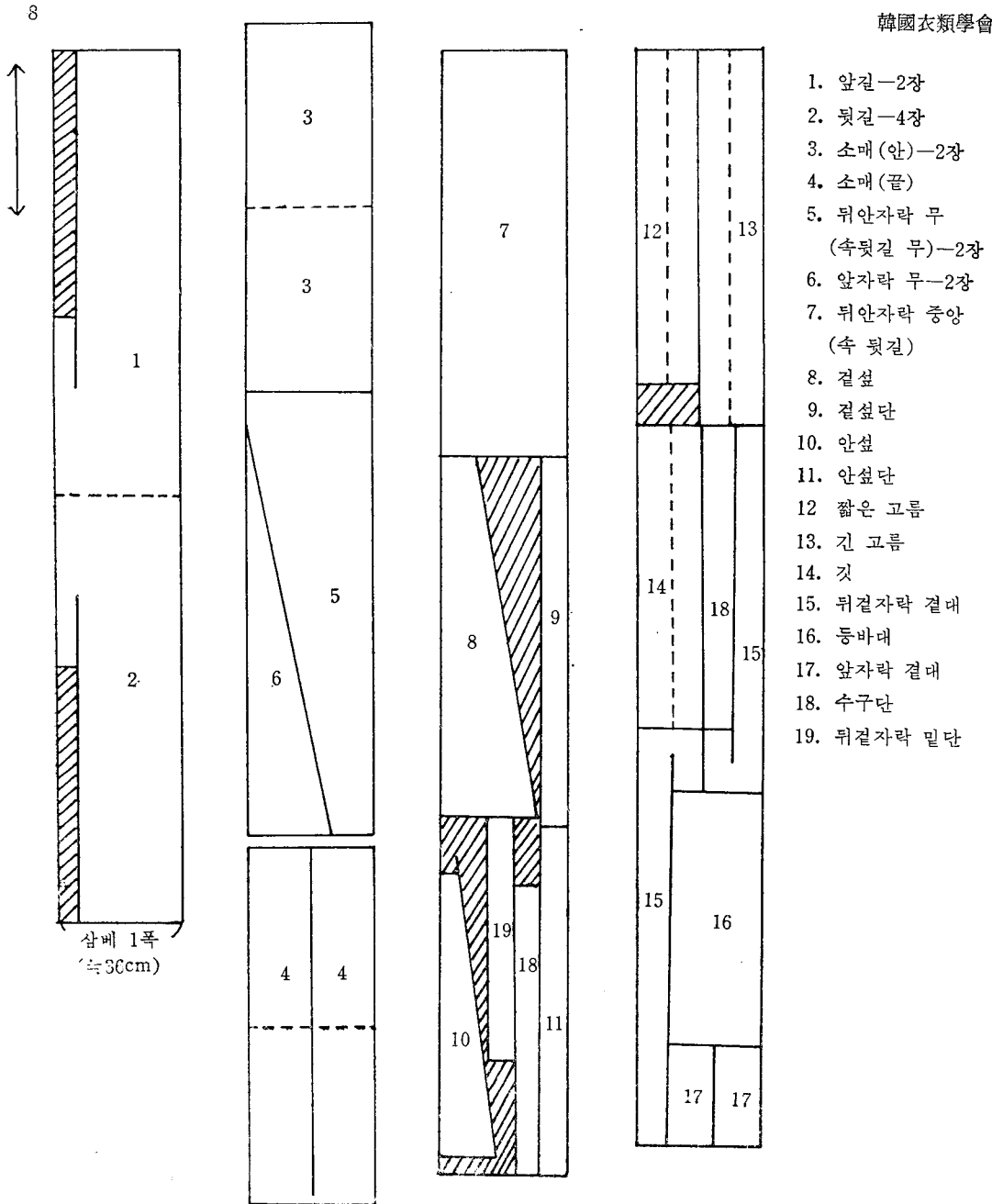


圖 10. 嶺東地域 道袍 마름질 실측치의 1/20축도

과 習慣은 이룩되게 마련이고 그 風俗은 地理風土의 外的條件과 內面的 生活條件과 時代性 歷史性的 背景으로 이룩되는 것으로 太白峻嶺을 分水嶺으로한 東海岸 一帶인 嶺東地域은 일반 民風의 形成條件과 같이 他地域과는 區別되는 독특한 生活習慣을 이루고 있는 地域이다. 江原道の 외판 庶民文化에 바탕을 두면서도 이른바 兩班文化의 性格을 띠고있어 옛부터 禮를 중히

여겼으며 이러한 風俗이 現在까지도 많이 作用하고 있으므로 古老들에 의해 옛禮俗의 維持가 固執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朝鮮時代 중엽 이후 선비의 대표적인 禮服중의 하나였던 道袍에 대하여 文獻을 통한 史的 考察로 生成時期, 由來에 대하여 考察하였고 기존의 研究를 바탕으로 이 地域 道袍着用에 대한 特徵을 民俗學的인 方法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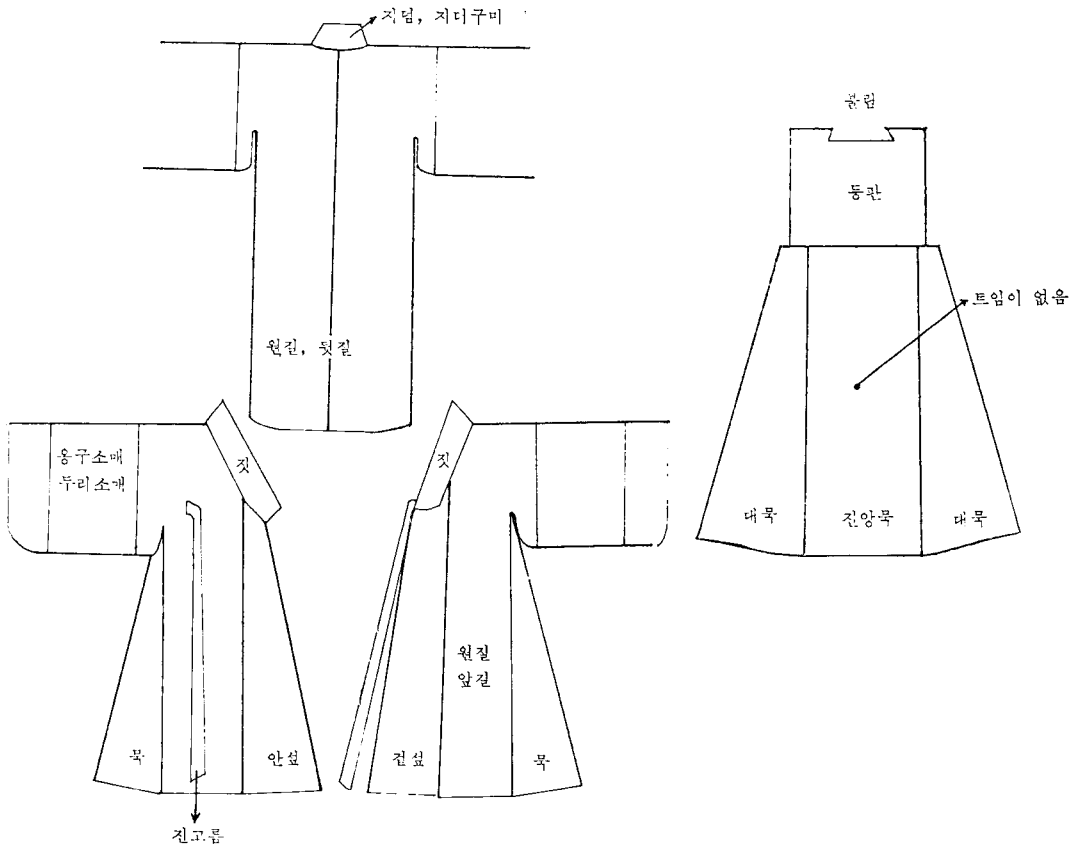


圖 11. 嶺東地域 道袍의 部分名稱 및 形態

道袍는 壬亂을 전후하여 생성된 袍로 士大夫의 燕居服, 出入上服, 儒生의 公服祭服, 四禮服으로 입혀진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國末에는 官識이 없는 사람의 大禮服, 小禮服으로도 着用되었으며 高宗의 大袖禁止令後 차츰 덜 着用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道袍의 由來에 대하여는 그 說이 分분하여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問題로 李滉은 大裘에서 온 것으로 보았고, 李德懋는 比丘의 圈套로 道釋에서 온 것으로 보았지만 道袍의 形態는 韓元震이 「南塘草稿」에서 밝힌바와 같이 直領과 같은 形態에서 變化하여 便利를 위해 뒷트임을 두고 禮服이라는 用度에 의해 한자락의 垂幅을 더 두었고, 차차 儒敎의 生活感情에 따른 闊袖形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國俗袍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道袍라는 名稱은 中國 士大夫의 燕居服이었던 直襟

을 일컫는 또다른 명칭인 道袍에서 모방된 듯하다.

이렇게 생성된 道袍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變化되고 受用되어 現在에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嶺東地域에는 아직도 면면히 禮服으로서 舊婚禮에서 道袍를 新婦가 마련하던 風俗에 따라 옥양목 두루마기에 베도포단은 꼭 해야한다는 慣習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道袍는 忌祭祀의 祭服, 父母喪의 喪服으로 후에 壽衣의 用度로 사용한다.

地域의인 特徵으로 形態도 他地域과는 달리 뒷트임이 없는 形態로 變化되었고 道袍의 素材도 거의 麻布를 쓰며, 道袍의 各部分을 稱하는 名稱에서도 差異를 보인다. 道袍에 대한 慣習도 특이하여 家門의 구별을 위해 동정을 달지 않는다거나 婚禮時 마련해 간 道袍는 離婚을 하고 헤어져도 찾아오지 못한다.

他地域 道袍 着用에 관한 民俗學的인 調査가 미비한 채로 정리되어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다음의 課題로 삼고자 한다.

註

- 1) 李瀛, 「星湖僿說」, 萬物門, 道袍/道服東俗所謂道袍,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卷四十五, 道袍辨證說/道袍則道服
- 2) 「廣才物譜」, 衣服部
- 3) 「事類博解」, 衣帶門
- 4) 高富子, “濟洲道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49. (1971).
- 5) 朴京子, “禮服”,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編)(서울: 三和印刷(株), p. 470. (1982).
- 6) 「宜祖實錄」, 卷二百十, 四十年四月/李弘望穿着草綠袂道袍
- 7) 「孝宗實錄」, 卷十八, 八年五月/上日道袍之制亦自壬辰後有之矣
- 8) 金東旭, “韓國服飾史辨證(17)”, 「博物館新聞」1983年 6月 1日, p. 3.
- 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然問其制度始則不能對離老師宿儒亦不知其緣起者无可攷據證信之蹟故也
- 1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 11) 李圭景, 앞글
道袍不曰袍而加道字於袍字上則可知其命名之義而其出於道釋又有一證今稱道袍則道服
- 1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原始秘書唐武后幸馮小保便爲懷義封梁國公故衣帽皆用朝扮曰直綴曰褊衫曰寬衣
- 1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道服按其制與直綴全本出於僧衣
- 14) 「辭海」, p. 2037. /亦作直綴古燕居之服也, 又稱道袍
- 15) 「中國歷代服飾大觀」(臺北: 百齒出版社), p. 59. (1984).
- 16) 李 瀛, 「星湖僿說」
字書云袍者表衣之通稱俗曰直身兩京稱道袍朝服也亦曰袍竇唐謂之馮翼今號直綴即古逢掖也
- 17) 「辭海」, p. 2611.
- 18) 「辭海」, p. 2859.
或名袈裟, 或名道服, 或名出世服
- 19) 江馬務, 「江馬務著作集」, (東京: 中央公論社), p. 224. (1975)
- 20) 「和漢三才圖會」, 寺島良安(編), (日本隋筆大成刊行會), [昭和 4年]
- 21) 「韓國佛教大辭典」, 卷 5, (서울: 寶蓮閣), p. 751. (1982)
- 2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腰中間斷以一線道橫之則謂之程子衣无線道則謂之道袍又曰直裾燕居之所常用也
- 23) 「中國歷代服裝大觀」, p. 159.
- 24) 江馬務, 「江馬務著作集」, (東京: 中央公論社), p. 224. (1975)
- 25) 「高宗實錄」, 二十五年十月二十八日
至宋而爲儒著道袍則始於道士而轉干僧徒至於我東而爲正服
- 26) 洪大容, 「湛軒書」, 外集三卷 乾淨衲筆談下 二十三日, 官著朝服及士著道袍大抵襲明制
- 27) 「成宗實錄」卷一百十二, 十年十二月
- 28) 「增補文獻備考」, 卷八十 禮考 二十七
李瀛曰道袍者據通考即古大裘之制非遐裔之瘠造而見於周禮周之禮必雜用古之制以東俗推之亦或是殷制也余故曰笠子道袍及婦人雙紉縵首皆從箕子而東者也禮者所以不忘本也祭用比物其義當然也
- 2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演繁露曰大裘如今之道服斜領交裾與今長背子略全其異者背子開胯裘則縫合腋也
- 30) 韓元震, 「南塘草稿」
愚謂士子之出入上服不可以爲官者所服直領公服故就直領稍變其制爲道袍也道袍之前面一如直領更無可考其後面爲直領者直領之二葉衫於道袍展附於衣裏汗版左右者然也
- 31) 「高宗實錄」, 二十一年 五月 二十八日
道袍直領乃意造無稽之服
- 3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未知厥初瓶製道袍者做魯之縫掖古之大裘
- 33) 金東旭, “韓國服飾史辨證(16)”, 「博物館新聞」, 1983年 6月 1日, p. 3. (1983).
- 34) 崔南善, 「朝鮮常識」, p. 121. (1948).
- 35) 趙槿姬, “道袍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pp. 42~55. (1986).
- 36) 成者姬, “嶺東地區祭享服飾考”, 關東大學論文集第12輯, p. 42. (1984).
- 37) 金榮子, “中國과 日本服飾의 트입에 대하여”, 崇義論叢, 제 9집, p. 431. (1986).
- 38) 면담자, 김만봉(72才) 강릉시 내곡동/장계자(75才) 양양군 인구읍/박氏 할머니(86才) 강릉시 교동/이

세자(69才) 명주군 성산면 금산리/박홍동(95才) 강릉시 금학동/조명원(74才) 명주군 연곡면 행정리/최순자(73才) 강릉시 홍제동/한명우(81才) 강릉시 죽현동

39)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二, 禮考十九, 冠禮/初加初則黑笠青袍改以笠子道袍江帶·「純祖實錄」, 卷二十二, 十九年三月/今此王世子冠禮初出房時若用道袍則與列聖朝已例庚申特教及中朝士冠禮儀所載時服之文俱似無違從之

39) 李紱, 「四禮便覽」, 卷三, 喪禮/侍者上服即死者服用以招魂者畧有官者公服或深衣無則代以道袍或直領

40) 한쪽 소매만 끼고, 고름으로 매서 입는다.

41) 鄭玩燮, “江陵地域의 傳統麻織物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3호, pp. 27~38. (1985).

42) 「江原總覽」, 강원도 기획관리실(編) p.165. (1975)

43) 崔承洵·李基述, 「太白의 禮俗(上)」, 江原文化叢書, p. 88. (1977).